

#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4. 4. 3. WED



##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5장 1~8절

다 같이

-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 나눔

----- 주 안에 있어야 할 성도 -----

인도자

바늘과 실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듯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도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관계를 팔레스타인의 흔한 과일이었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우셨습니다. 즉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듯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 안에 있어야 할 구체적인 이유들을 본문의 원어를 통해 살펴 볼 때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밀착된 생활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 있지'(μένω, 메노)는 '유하다', '머물러 있다',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에게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한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맞춰주는 교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며,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기도하며 생각하고 교회를 정해야 합니다. 한 번 정한 교회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는 품성의 열매와 여러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과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성도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으실'(δοξάζω, 독사조)은 '칭송받다', '영화롭게 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을 지니며 이와 유사한 말로 구약에서는 '높임을 받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의 '카바드'(כבד)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는 열매가 하나님 명성을 높이고 만민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드림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 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속 없이 산다는 이웃의 평가나 비웃음에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는 쇠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머무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열매 없는 가지는 불에 태워집니다.

본문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가혹히 심판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나니'(ξηραίνω, 크세라이노)는 식물이 태양에 노출되어 마르는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 곁을 떠난 인간이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한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은 열매 맺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자신의 영혼 자체에 생기가 없고 점점 죽어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자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πυρ, 푸르)은 성경에서 주로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본문의 뜻은 예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은 그 영혼이 점점 비참한 상태로 빠져들며 결국엔 쓸모없는 자로 판정되어 영원히 타는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고상한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면하는 최상의 방법임을 깨달아 모두 다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            눌            -----            다    같    이

- 1 친구 혹은 이웃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혹시 비웃음을 받은 적이 있나요?
- 2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중   보   기   도            -----            가   정   을   위   한   기   도   문            -----            다    같    이

- 1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사랑의 언어로 서로 축복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 2 가정의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도록
- 3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 4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 마   무   리   기   도            -----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열매 맺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